

##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 이 수 자

1. 머리말
2.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
3.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의
4.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의  
문화사적 의의
5. 맺음말

# 1. 머리말

칠월 백중은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의 중요한 세시절기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날을 즈음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수많은 행사가 행해져 왔던 흔적이 있고, 또한 오늘날도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종류의 백중 행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백중에는 현재도 많은 본향당을 중심으로 백중굿이 행해지고 있으며,<sup>1)</sup> 여러 지역에서는 목축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테우리 코사와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다. 테우리 코사라는 말에 있어 ‘테우리’는 ‘목동’을, ‘코사’는 ‘고사(告祀)’를 뜻하는 것이어서, 테우리 코사란 곧 목동들이 행하는 제의나 의식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키우고 있는 마소의 증식과 번성을 기원하고자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테우리 코사는 반드시 목동들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테우리 코사는 해변이나 어촌을 제외한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마불림제’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불림제란 곧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바, 칠월 백중을 즈음하여 행해지는 목축업 중심의 우마증식 제의를 뜻하는 것이다.

마불림제란 일반적으로 앞서와 같이 백중에 즈음하여 행해지고 있는 우마증식제의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 지역에서는 백중날 본향당에서 당신(堂神)인 금백주할망을 모시고 백중굿을 할 때 이 여신의 옷을 꺼내어 바람에 말리면서 이를 마불림제라 하고 있기도 하여, 여기에서는 마불림제를 곱팡이와 같은 마을 바람에 불려 쫓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제주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불림제란 말을 앞서와 같이 우마증식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sup>2)</sup>

---

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579~587쪽을 참조하면 7월 열나흘 백중제를 하는 당은 용담동 내왓당, 삼양동 설개 본향당, 회천동 세밧당, 용강동 깨당, 월평동 다리콧 본향당, 오라동 오라위 본향당과 남세당 등이 있다.

2) 제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관인 고광민님도 이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2004년 8월 27일 밤).

마불림제의 의미를 옷에 생긴 곰팡이 같은 마를 바람에 불려 없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도의 많은 지역에서 이것이 우마의 증식과 번성을 기원하는 제의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신화적 내용이나 단어적 의미를 중시할 때 이것은 우마의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로 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일단 마불림제를 우마 증식 및 번성을 기원하는 제의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불림제란 곧 테우리 코사와 같은 것으로, 제주도의 많은 지역에서는 백중날 이것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왜 백중날 우마 증식 같은 것을 기원하는 마불림제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마불림제, 혹은 테우리 코사가 마소의 안전성장 및 건강, 그리고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라면, 이러한 제의는 실상 연간에 걸쳐 마소의 번식과 증식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연초에 행해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일년간 우리들 삶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마치 연초인 정월 대보름에 몰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아니면 말의 생태학적 측면이나 인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생명의 계절이라 할 수 있는 봄철이거나 혹은 수확의 계절이라 할 수 있는 가을에 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의 많은 축제의 기원이 된 제의들이 대부분 봄철이나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몰려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마불림제나 테우리 코사는 연초나 봄, 혹은 가을이 아니라 백중이라고 하는 우리의 세시절기에 맞추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왜 하필이면 마불림제가 백중에 즈음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어떤 원인이나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본고는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이나 기원적 문제를 해명해보고자 시도되는 것이다.<sup>3)</sup>

3) 본 논문은 2004년 8월 27~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주도 송당마을 신화축제에서 거행되었던 바, ‘제주도 신화의 본향, 송당신화의 제 문제-제주도 신화의 본향을 찾아서’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장소: 제주도 송당마을, 주최: 문화역사마을만들기 북제주군추진협의회, 주관: 한국역사민속학회, 후원: 제주도, 제주시, 북제주군, 제주민예총)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실은 글이다. 송당마을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역사마을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 날의 행사는 이를 기념하는 축제였다.

현재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무속제의인 큰굿 속에는 다행히도 앞서와 같은 상황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신화가 살아남아 있다. 바로 <세경본풀이>라 불리고 있는 신화인데, 이 신화는 현재도 심방(무당)에 의해 무속제의에서 불리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우리 문화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도 농경기원신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sup>4)</sup> 백중의 기원이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음도<sup>5)</sup> 알게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신화를 통해 제주도에서는 왜 마불림제가 특히 백중에 즈음하여 행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해명해 보고, 이것이 가지는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는 이 신화의 신화적 의의 및 백중과 마불림제가 가지는 상관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관성이 갖고 있는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2.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내용

<세경본풀이>라는 신화가 실려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朝鮮巫俗の研究』상, 『남국의 무가』, 『韓國의 民間信仰』(자료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등이 있지만,<sup>6)</sup> 이 외에도 이 신화는 더 많은 자료에 소개되어 있다.<sup>7)</sup> 여기에서는 이

4)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설화적 기능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5.;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설화적 기능과 의의」, 『설화연구』, 국어국문학회편, 국문학연구총서 12, 태학사, 1998.;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5)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한국민속학』 25집, 민속학회, 1993.

6)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조선총독부, 1937. 이 책은 후일 심우성 역으로 동문선에서 1991년 우리말로 발간되었다.

진성기, 「남국의 무가」(프린트본), 제주민속문화총서, 1968.; 장주근, 『韓國의 民間信仰』, 金花舎(일본), 197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76.; 진성기,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사,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0.;

외의 자료도 참고하지만, 대체로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중시하면서 신화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sup>8)</sup> 이 자료에 의거하면,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는 현재 제주도 큰굿 31개 제차 중 17번째 제차인 ‘세경본풀이’라는 제차에서 불리고 있다. 이 의례에서 심방은 신을 맞이하는 제의에서 의례적으로 행하는 몇 개의 작은 소의식(小儀式) 들을 행하고 이어서 이 신화를 구송한다. 이 신화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세경신의 하르방, 할망, 아방, 어명과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이 누구누구라고 설명하고, 이어 세경신의 난산곡을 읊다고 한 후 본 신화를 구송한다.

1) 집안이 부요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던 김진국대감과 조지국(조진국)부인은 권제삼문을 받으러 온 대사의 말을 듣고 동개남은증절에 원불수룩[아기 낳기를 기원하는 제의]을 드리러 간다.

여기까지는 각 자료가 비슷하나 다음 내용은 자료에 따라 조금 다르다.

○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동개남은증절에 많은 물건을 시주하고 백일동안 시주를 드리나 시주한 물건이 백 근이 못 찬 아흔아홉 근이라 딸을 낳고 이름을 자청비라 짓는다.

○ (『朝鮮巫俗의 研究』) 시주할 물건을 싣고 동개남은증절에 가다가 도중에 서개남 백금사 중을 만나 그곳으로 가서 원불수룩을 드린다. 동개남은증절 대사는 이것을 패심히 생각하고 조화를 부려 부부에게는 딸을 접지하고, 하녀에게는 아들을 낳게 한다.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무가』,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 2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고대경, 『신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제주), 1997.;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 『제주도 큰굿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김순이 글, 한진이 옮김, 『제주도 신화전설』 1·2, 제주문화, 2001.

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315~362쪽 참조.

○ (「남국의 무가」): 조진국부인은 여자의 마음이라 시주할 물건에서 반 근을 덜어낸다. 그리고 동개남은중절로 가다가 도중에 길을 바꿔 서과남의무광절에 가서 원불수룩을 드린다. 동개남이은중절의 대사는 두 가지를 쾌싹하게 생각하여 부부에게 딸을 접지한다.

2)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지상의 거무 선생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이 그녀를 보고 반하여 마실 물을 달라고 한다. 자청비가 물에다 버들잎을 띄워주니 문도령은 화를 내는데, 자청비는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봐 그랬다고 한다.

3) 자청비도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남장을 하고 그를 따라 서당으로 가 글공부를 하는데, 삼 년을 지내는 동안 자청비는 문도령보다 공부를 잘 한다. 또한 자청비는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청한 오줌누기 시험에서도 왕대를 이용해 오줌을 멀리 누어 문도령을 이기고 자신이 남자인 것처럼 한다.

4) 장가 들러오라는 하늘 옥황의 편지를 받고 문도령이 하늘로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서당을 떠나 집으로 온다. 자청비는 도중에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하며 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버드나무 앞에 자신이 여자임을 알리는 글을 써 문도령에게 전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자청비가 여자임을 알게 된 문도령은 여장을 하고 자청비의 집으로 가 함께 석 달을 지낸 후 본매(信物)를 나누어 갖고 하늘로 돌아간다.

5) 자청비가 남종 정이으신 정수남에게 산에가 나무라도 해오고 꽃이라도 꺾어 오라 하니,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말 아홉과 소 아홉 마리, 길마, 도끼, 옷 등을 준비해 달라 하여 굴미굴산에 올라 가 잠만 지는데, 이 사이 우마가 전부 죽으니 정수남은 불을 피워 이들을 다 구어 먹고 돌아온다. 정수남은 혼이 날까봐 자청비에게 거짓으로 산에 문도령이 노는 것을 보다가 우마를 잃었다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남종을 따라 산으로 가고자 한다. 산을 향해 길을 떠날 때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짠 음식을 많이 만들게 하고, 말머리고사를 지내게 하며 산

으로 함께 가는데, 굴미굴산에 도착한 자청비는 남중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 자청비는 남중이 자신을 속인 데다가 또 겁간까지 하려 하자 그를 죽여 버리는데, 자청비의 부모는 일 잘하는 남중을 죽였다고 하여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낸다.

6)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에 가서 부엉새를 잡아 주는 공을 세우고 그곳의 사위가 되어 생명꽃(도환생꽃)을 얻어와 남중 정수남을 살려낸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여자가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하며 다시 또 딸을 쫓아낸다.

7)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가 하늘나라 문도령에게 갈 비단을 짤 때 자신의 이름을 짜 넣어 보내니, 이를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보러 지상에 내려온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보라 하고, 바늘을 찔러 피가 나오게 하니, 문도령은 화가 나 자청비를 만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 일로 청태국할망은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내 버린다.

8)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문도령이 옛날에 자청비와 함께 마시던 물을 길어 오라고 내려 보낸 선녀들을 도와 그 장소를 알려주고, 후에 함께 하늘로 올라 문도령을 만난다.

9)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시부모가 낸 어려운 시험, 즉 선 자 구덩이 속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깔선 다리를 놓고 그 위를 걸어 통과하는 일을 무사히 치른 후 마침내 문도령과 결혼한다. 문도령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서수왕파님에게는 이열에 바쳐 자살하여 죽으면서 이 세상에 온갖 사기(邪氣)를 만들어낸다.

10) 자청비는 전에 ‘서천꽃밭’에서 자신이 사위가 되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문도령을 그 곳으로 보내 보름씩만 사위노릇을 하게 한다. 그러나 문도령이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사망했다는 거짓 편지를 써 보내 문도령을 돌아오게 한다.

11) 자청비가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자 하늘나라의 선비들이 그녀를 푸대접하기 위해 술잔치를 벌여 문도령을 죽이고자 한다. 자청비의 기지로 술잔치에서의 죽음은 모면하나 외눈할망에게 속아 결국 문도령이 죽는다.

12) 자청비는 여러 가지 기지로 푸대접을 모면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생명꽃(도환생꽃)을 얻어와 문도령을 살린다.

13) 하늘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을 죽게 할 수 있는 꽃인 ‘수레빨망악심꽃’을 가져와 이것으로 난을 진압한다.

14) 변란을 진압한 공으로 자청비는 하늘의 신으로부터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고 문도령과 함께 칠월 열나흘 인간세상에 내려온다.[여기에서 심방은 “~그 때 내은 법으로 칠월 열나흘(七月 十四日) 백중살이가 뉘옵네다” 라고 구송한다.]

15) 자청비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남종 정수남을 만나 자신의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후에는 정수남에게 점심을 주지 않았던 아홉 형제에게는 급병을, 그들의 소에게는 열두 풍문을 주고, 그 밭은 흉년이 되게 한다. 반면에 정수남에게 밥을 준 두 늙은이의 밭에는 풍년을 준다.

16) 자청비는 정수남을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마블림제[우마의 증식을 비는 제]를 얻어먹고 살게 한다.

17) 오곡씨를 마련하다 보니 메밀씨를 잇은 것이 생각나 다시 하늘에 가서 가져온다. 이 때문에 메밀은 시기적으로 한 부중이 늦게 되었다.

18)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으로 좌정하고,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7월 마블림을 받아먹도록 마련되었다.



\*\*\* 즈부일월 상세경의 난산국이었다고 말한다.

신화 세경본풀이는 원래 내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에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해도 이렇게 길다. 내용 중 \*\*\* 부분은 이것이 세경신, 즉 농경신에 대한 제의를 행하면서 구송되는 것이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심방은 어떤 본풀이, 곧 신화를 구송할 때 항상 이렇게 “~신의 난산국을 푼다”, 또는 “~신의 난산국이었다”고 하면서 신화를 시작하고 끝냈는데, 이것은 ~에 해당되는 신의 근본 내력을 풀어 설명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조하면, 본 신화가 구송되는 제의가 어떤 신에 대한 제의였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신화에서는 이 본풀이가 세경신 곧 농경신에 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 3.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의

앞에서 소개한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에는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마불림제가 어떻게 하여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나 기원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 1) 농경기원신화로서의 의의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에 대한 근본 내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 신화이다. 이것은 신화가 구술되는 전후의 \*\*\* 부분을 참고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경신의 난산국을 풀었다 하고 있으므로, 이 신화는 곧 세경신에 대한 신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화의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면 세경신에는 세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세경인 문도령과 중세경인 자청비, 그리고 하세경인 정수님이 바로 이들이다.

신화 내용을 증시하면 세 신들 중 가장 중요한 신은 바로 여신인 중세경 자청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신화가 자청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

서도 그렇지만, 세 신 중 가장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청비라는 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세경신이 되는데 있어 가장 큰 공업을 세우고 있는 신도 바로 이 신이기 때문이다.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 세경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청비가 하늘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해 주는 공업을 세우고, 그 공으로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 그리고 ‘메밀씨’를 얻어와 지상의 우리 인간들, 곧 우리민족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청비가 오곡종자와 메밀씨, 그리고 열두시만국과 같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풍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신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세경신이란 곧 농경과 관련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청비가 농경신, 혹은 농경기원신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세경본풀이는 우리의 농경기원을 알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에 관한 신화라서 그런지 남녀의 사랑 및 여성이 가지는 생산력, 번식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신화는 시종일관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이 처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맺고 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어서는 마침내 어떻게 세경신, 곧 농경신이 되었는지를 이 신화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농경기원신화에 특히 이처럼 남녀간의 사랑이 주제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농경에 있어 곡물의 수확이 ‘암수의 결합에 의한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논리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남녀의 결합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신화형성집단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하여 식물 역시 암수의 결합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풍농을 얻고자 하는 심정에서 신화 속에 이같이 신들의 애정결연적 요소를 많이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신화에 특히 신들이 ‘남장(男裝)’과 ‘여장(女裝)’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집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한 번 여장을 하지만,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 서당으로 갈 때, 그리고 남종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도환생꽃을 얻으러 들어갈 때 남장을 하는 등 두 번이나 남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남성의 여성화, 혹은 여성의 남성화는 남녀

양성의 내재적인 성 결합, 즉 양성구유(兩性具有)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신들의 양성구유적 상황은 흔히 우주적 풍요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경본풀이의 기저에는 농경 및 풍농적인 요소가 강하게 밀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몇 차례 논한 바 있기에<sup>9)</sup>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기로 한다.

## 2) 백중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신화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칭비라는 여신이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이 바로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화에서는 자칭비라는 여신이 행한 바의 오곡과 열두시만국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 일에 의거하여, 그 때 낸 법으로 ‘칠월 열나흘이 백중살이가 되었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362쪽에는 “~이러한 일로 하여 칠월 열나흘 백중살이가 됩니다.~”라 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에 나타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면 칠월 열나흘 백중은 자칭비라는 여신이 하늘로부터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가지고 내려왔던 바의 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바로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속에 있어 중요한 세시 중의 하나였던 백중은 주지하다시피 그 날짜가 음력 7월 15일이다. 그리고 이 날은 전국에 걸쳐 농신(農神)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농경과 관련된 많은 민속행사가 행해져 왔다. 현재 전하는 백중날의 여러 민속과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가 전해 주는 사실에는 백중이라는 명칭과 농신 및 농경에 관한 공통성, 그리고 날짜 상으로 일치하는 그 무엇이 있다. 때문에 필자는 예전에 이미 백중의 형성기원이 세경본풀이와 같은 농경기원신화에 있는 것이며, 그 성격은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이었을 가

9)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48~152쪽 참조;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능성이 있음을 논한 바 있다.<sup>10)</sup>

신화란 원고(原古)의 시대에 이루어진 신들의 행위에 비롯하여 현존하는 자연환경의 제 현상이나 인간사회의 의례, 또는 의미 있는 모든 인간 행동의 범례를 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1)</sup> 따라서 신화 속에는 반드시 창세의 원리 및 수많은 의식이 마련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기 마련인데, 제주도의 큰굿에서 불리는 신화 속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농경신에 관한 신화인 세경본풀이 속에도 여러 가지 인간사 법칙이 마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중도 바로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백중은 바로 자칭비라는 여신이 하늘의 신으로부터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와 우리 인간 세상에 전해준 날이 음력 칠월 열나흘(7월 14일)이기에, 이러한 신의 일에 기인하여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우리 민속 중 백중의 형성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화라 할 수 있다.

그간 백중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① 신라의 가배와 결부하여 이해되기도 하고<sup>12)</sup> ② 절에서 행해지는 약수욕(藥水浴)이나 조상의 천도, 또는 우란분재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련존자의 일에서 형성된 불교적 행사로 말해져 오기도 하였다. 즉, 이것은 우란분경에 전해지는 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생전에 많은 죄를 지어 죽은 뒤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을 때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석가모니에게 애원하여 그의 지시로 7월 15일에 오미백과(五味百果)를 쟁반에 받들어 십방대덕(十方大德)에게 공양하여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였다는 불교설화에 기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13)</sup> 그리고 ③ 최남선이 ‘농사 진행상의 어느 계단에 있는 일행사와

10)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한국민속학』 25집, 민속학회, 1993.

11) M. 엘리야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형설출판사, 1982, 444쪽 참조; 大林太浪, 『神話學入門』, 中央公論社(일본), 1966, 48~50쪽 참조; 왕빈,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1980, 18쪽 및 44쪽 참조.

12) 『열양세시기』 7월 중원조.

13) A.D. 6C경 중국사람 중늬에 의해 쓰여진 중국 세시기인 『형초세시기』에도 백중의 기원을 목련존자의 일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7월 중원조에도 이처럼 설명되어 있다. 한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권42에서도 백중의 의미를 부처님께 百種之物로써 재를 지내고 기록을 비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불교 도교의 요소 등이 잡유하여 특수한 일 형태를 구성한 절일로 볼 것'이라고 한 이래,<sup>14)</sup> 이것이 농경과 관련된 명절일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 선학들이 언급해 왔는데 ④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백중이라는 목동이 죽어 농신이 되었다는 설화에 근거하여<sup>15)</sup> 백중이 고대에는 농신제일(農神祭日)이었을 가능성도 타진된 바 있다.<sup>16)</sup>

백중의 기원은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백중이라는 목동의 전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고대의 농신제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겠으나, 전설 같은 것보다는 제의에서 구송되는 신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백중의 기원은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를 근거로, 그 기원을 고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3) 농경과 목축과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신화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세경신 중 상세경과 중세경이 되는 문도령과 자칭비는 부부로, 그리고 우마를 관장하는 목축신인 하세경 정수남은 자칭비네 집의 남종으로 되어 있다. 목축신이 농경신과 함께 제의되고, 농경신에 대한 본풀이 속에 목축신에 대한 내용이 함께 설명되고 있는 것은 농경과 함께 가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마를 관장하는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이 자칭비네 집의 남종으로 설정된 것은 농업을 위해 마소가 이용되던 것의 비유적 표현이며, 이들이 주종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가

14) 최남선, 『조선상식』 세시편 백중, 1948.

15) 여기에 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차컷벵 뒤에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았다. 하루는 하늘의 옥황이 내려와 바다의 거북을 불러 “밤에 석 자 다섯 치의 비를 내리고 풍우대작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을 몰래 엿들은 백중은 걱정이 되어, 거짓으로 옥황의 소리를 내어 “이까는 잘못 말했다. 비는 다섯 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라” 하였다. 하늘의 옥황은 자기 명령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노하여 “백중을 잡아들이라” 명하였다. 백중은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 덕분에 대풍작을 거둔 농민들이 백중을 기리어 해마다 그가 죽은 날인 7월 14일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92~94쪽 참조)

16) 『한국민속대관』 4, 세시풍속 전승놀이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1980, 235쪽 참조.

축사용을 농경의 종속적 관계로 파악한 것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 농경 시에 마소의 힘을 이용했던 것이기에 목축신은 특히 힘의 상징인 남종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신화에 있어 농경적 요소와 맞물려 있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농경신인 자청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또한 농경과 가축이 관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보다 합리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남종과 관련된 요소들은 신화형성 당시부터 있었던 고유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들의 출생담과 관련된 내용은 남종 정수남의 탄생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조선의 무가』 자료가 옳다고 할 수 있으며, 세경본풀이 같은 신화가 형성될 당시 사회는 이미 농경에 있어 목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마불림제의 기원 및 성격을 알게 해 주는 신화

세경본풀이에는 백중의 기원과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칠월의 마불림제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그 성격은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다. 마불림제는 자청비라는 신이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가지고 문도령과 함께 칠월 열나흘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 자기네 집의 남종이었던 정수남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마불림제를 얻어 먹고 살게 하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신화 내용을 보면, 이후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어 7월 마불림을 받아먹도록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불림, 혹은 마불림제란 우마의 증식과 번성을 비는 제의라 할 수 있는데, 단어적인 의미만을 중시하면 소보다는 말, 즉 마(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불림제’란 말에 있어, ‘마’는 ‘말’을 뜻하며, ‘불림’은 ‘(물)에 불린다’, ‘크게 하다’의 뜻으로 ‘많게 하다’, ‘증식시키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농경신인 자청비네 집의 남종이었던 정수남이 말의 증식과 번성을 관장하는 신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신화 내용을 중시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이 신은 소 아홉 마리와 말 아홉 마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폭식성(暴食性)을 가진 바, 우마에 대해서는 아주 폭력적이고도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신화 내용 중 5)번을 보면, 정수남은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하면서 말 아홉 마리와 소 아홉 마리를 데리고 굴미굴산에 갔다가 우마를 동서의 나무에 매어 놓고 며칠씩 잠만 자는데, 이 사이 소나 말들이 다 죽어 버리자 불을 피워 이들을 다 구어 먹고 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청비에게 산에 문도령이 노는 것을 구경하다가 우마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신은 우마를 죽게 하는 동시에 잡아먹기도 하는 무서운 신이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빌면서 우마를 잡아먹지 않고, 잘 보호해 주기를 기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는, 정수남이라는 신은 ‘말머리고사’라는 제의를 마련한 전적이 있는 신인 동시에 말을 해치기도 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으로, 문도령과 헤어진 이후 그를 그리워하고 있던 자청비는 남중 정수남이 굴미굴산에 가서 문도령이 하늘에서 궁녀 및 시녀들과 함께 내려와 놀고 있는 것을 보다가 우마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 말을 곧이 듣고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여 정수남과 함께 굴미굴산에 간다. 갈 때 정수남은 자청비를 골탕 먹이려고 말 등에 빈 소리껍질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자청비를 앉게 하는데, 자청비가 말에 올라타자 말이 성(화)을 내니, 자청비가 놀라 정수남에게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묻는다. 이 때 정수남은 “상전은 굴미굴산에 가서 문도령을 만나 좋은 영화를 누리건만 말은 무슨 영화가 있어 가겠느냐? 그래서 화가 난 것 같다.”고 하면서,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 술 아홉 동이를 차려 놓고, 말머리 수건을 석자 오치 마련하고, 돼지머리도 차려 놓고 ‘말머리코사’를 지내라고 한다. 자청비가 급하게 음식을 마련하여 말머리코사를 지내니, 정수남은 차려 놓은 음식을 조금씩 걷어 모아 자청비 몰래 말의 왼쪽 귀에 쏟아 붓는다. 귀 속에 물이 들어가자 말이 도리질을 하니, 정수남은 말이 배가 불러 머리를 흔들어댄다고 하며, 차려 놓은 음식은 마부만 먹는 것이라 하면서 그 음식들을 혼자 다 먹어 치운다.[이 때 낸 법으로 사람은 혼인식을 할 때 말머리 수건을 석자오치 차려 놓고 말머리코사를 지내는 법이며,

말머리코사 지낸 음식은 마부 노릇하는 하님만 먹는 법이라 한다.]

이처럼 정수남은 우마를 죽게도 하며, 불에 구어 먹기도 하고, 또 말을 해치기도 하는 동시에 말의 성(화)을 잠재워 말과 인간과의 사이를 원만하게도 할 수 있는 말머리코사와 같은 제의를 마련하기도 한 신이다. 즉, 우마와 같은 동물을 해치기도 하고 보호할 수도 있는 바, 우마를 자유자재로 관장할 수 있는 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는 일단 우마관장신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칭비는 정수남이 가진 바, 우마와 관련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을 알고 있기에 그로 하여금 마불림제를 받아 먹도록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수남이라는 신이 7월 마불림제를 받아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세경 본풀이가 신화이기에, 신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신들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신화를 창조하고, 신화를 구송하고 있는 인간의 일로 바꾼다면, 이 내용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7월 백중에 우마의 안전성장과 증식, 그리고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마불림제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신화를 구송하고 있었던 집단은 칠월 백중에 마불림제를 행해야 했고, 또 실제로 행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상의 내용들은 7월 백중에 행해지는 마불림제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정수남이라는 신이 말을 해치고, 또한 우마를 한 번에 각기 아홉 마리 이상씩이나 잡아먹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의를 행하면서, 그가 우마를 잡아먹지 않아 우마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한 번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제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마불림제에 있어 제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 신은 바로 남종 ‘정이으신정수남’이라는 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신은 우마를 해치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신이기에, 우리 인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우마 대신 먹을 것, 곧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들 인간세상의 말이나 소가 안전하게 잘 성장하기를, 그리고 번성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마불림제의 성격과 기원을 이상과 같이 보면, 이러한 내용은 현행되는 마불



림제가 왜 백중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해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세경본풀이와 같은 농경기원신화가 살아있는 문화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신화 내용에 근거하여 마블림제가 백중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행해졌던 제의였기에 현금까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문화는 매우 고풍의 문화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경본풀이를 소개하는 데 있어 『朝鮮巫俗の 研究』 上, 460쪽에는 “일년 백중이면 말머리고사를 드린다.” 라는 내용이 있기도 한데, 이러한 내용을 중시하면 백중날 행해졌었던 마블림제는 ‘말머리고사’라 하기도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나오는 바 5)의 내용 중 정수남이 마련했던 제의인 ‘말머리고사’와 그 명칭이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제주도의 마블림제가 백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의 문화사적 의의

제주도에서는 백중에 즈음하여 마블림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 같은 신화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백중의 기원을 제주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백중이라는 목동이 죽어 농신이 되었다는 설화에 근거하여 백중이 고대에는 농신제일(農神祭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설화 내용은 백중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게 할지는 몰라도 왜 하필이면 이 날 우마증식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블림제가 행해지게 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가 전하는 것처럼, 이 신화 내용에 의거하여 우리문화에 있어 백중 및 마블림제의 형성기원과 성격을 추정하고, 또한 마블림제가 특히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는 이유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송당 지역에서는 마블림제의 의미를 별도로 이해하고 있기에,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블림제의 기원은 따로 송당의 당본풀이에 나오는 바 소로스천국의 일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이 신도 우마를 잡아먹는

신이라는 점에서 마블림제의 대상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주할망의 남편인 소로소천국은 주로 소를 때려 죽여 구어 먹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블림제라는 명칭은 소보다는 주로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본풀이에서는 말보다 소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본풀이는 신화 내용을 중시할 때, 마블림제가 왜 백중에 행해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때문에 송당 지역에서 백중날 마블림제가 행해지게 된 것을 당본풀이와 관련하여 해명할 수는 없다.

구좌읍 송당마을에서 마블림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든, 여기에서도 마블림제라는 명칭의 제의가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백중과 마블림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송당마을의 마블림제는 어쩌면 원래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졌었던 우마증식제가 그 의미를 상실하면서 현재의 의미로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제주도에서는 백중에 즈음하여 ‘마블림제’라는 제의가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서도 고찰한 것처럼 기원적으로는 세경본풀이와 같은 신화로부터 시작된 바, 우마증식제인 마블림제가 백중에 즈음하여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마블림제가 백중과 가지는 상관성을 이상과 같이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를 통해 규명해 보면, 우리문화에 있어 세경본풀이라는 농경기원신화가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백중의 형성기원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마블림제의 형성기원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신화는 우리 문화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화라 할 수 있는데, 현금까지는 이 신화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들이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또한 신화가 전하는 내용이 현재의 문화와 일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면,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는 현재까지도 진실을 전하고 있는 바, 살아 존재하고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신화는 아직도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현재 제주도 큰굿 31개 제차 중 17번째 제차인 ‘세경본풀이’

라는 제차에서 불리고 있지만, 원래는 열두거리 큰곳 중 여덟 번째 거리인 세경신, 곧 농경신에 대한 제차에서 불렸던 신화일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큰곳과 여기에서 불리고 있는 신화는 원래 육지 쪽에서 창조·형성되었던 것이 제주도가 섬이고 세습무가 많아 여기에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매우 고품의 문화물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농경신에 대한 제의나 농경기 원신화와 같은 것이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형성되거나 창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이러한 성격을 중시할 때도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는 비교적 오래된 문화물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백중에 즈음하여 제주도에서 마블림제와 같은 것이 행해지게 된 것도 실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블림제’란 의식의 명칭은 단어의 뜻만을 중시하면 ‘말의 불림’, 즉 ‘말의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라는 뜻이다. 제주도 무속언어는 [한자어+우리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천지창생신화라 할 수 있는 배포도업침에도 신들의 이름이 ‘대별왕’, 혹은 ‘소별왕’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 ‘소’는 한자어이고, ‘별’이란 말은 고유어이다. 그런데 마블림제 역시 이와 같은 언어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마블림제는 그 명칭을 볼 때, 소보다는 말이 더 중시되거나 강조되고 있다. 정수남이라는 신은 원래 우마를 함께 잡아먹은 신이지만, 신화 내에서 이 신에 대한 제의가 우마블림제가 아니라 마블림제로 불리고 있다. 즉, 소보다는 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말을 많이 이용해 왔다. 이것은 제주도의 땅이 화산암이라 암석이 많고, 흙이 적어 소가 밭을 갈기에 부적합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문화학적 현상이 신화에 반영되어 신화에서는 이처럼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어쩌면 신화형성집단이 원래 농경 시작에 있어 말을 중시하고, 이것을 사용했기에 우리의 농경기원신화 속에 이처럼 말이 중시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17)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참조

육지 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주로 소를 이용해 왔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말을 많이 이용해 왔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나고 있는 바, 그리고 현재의 문화에 남아 있는바 우마의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를 가리켜 ‘마불림제’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이처럼 농경에 있어 말을 이용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기원적으로 농경의 시작에 있어 말을 이용했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신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농경기원과 말은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현재까지 말은 주로 교통수단이나 전쟁, 즉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만 이해해 왔다. 그러나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나 있는 바, 이와 같은 말에 대한 강조 및 중시는 앞으로 우리문화에 나타나는 말(馬)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단서 및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 5. 맏음말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는 음력 칠월 십오일인 백중에 즈음하여 마불림제, 혹은 테우리코사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나 말의 증식과 번성을 기원하는 제의로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마불림제, 혹은 테우리 코사가 마소의 안전성장 및 건강, 그리고 증식을 기원하는 제의라면, 이러한 제의는 실상 연간에 걸쳐 마소의 번식과 증식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연초에 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연초나 봄, 혹은 가을이 아니라 백중이라고 하는 세시에 맞추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하필 백중에 즈음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해명해보고자 시도된 글이었는데,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제의인 큰굿에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

가 구송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신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블림제가 왜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있다. 기자정성을 통해 태어난 여주인공 자청비는 성장한 후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남장을 하고 함께 서당에가 삼 년을 같이 공부하며 지낸다. 하늘에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 문도령을 돌아오게 하자,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과 함께 사랑을 나눈 후 이별을 한다. 온갖 고생 끝에 자청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을 돕고, 그들을 따라 하늘에 올라 문도령을 만난 후, 하늘신이 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결혼을 한다. 마지막에는 하늘의 변란을 진압해주고, 그 공으로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어 문도령과 함께 음력 칠월 열나흘 지상으로 내려온다. 후에 메밀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생각나 다시 하늘에 올라 이것도 가져오는데, 내려와 보니 남종이었던 정수남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칠월 마블림제를 얻어먹고 살게 한다. 이후에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남종 정수남은 하세경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신화 내용이다.

<세경본풀이>는 오곡종자와 메밀씨, 그리고 열두시만국을 가져다 준 신에 관한 신화이기에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신화라 할 수 있는데, 오곡종자를 가져다 준 날짜가 바로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 하고 있어, 우리의 세시풍속 중 백중의 기원이 바로 농경기원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신화 내용에 따르면 마블림제는 자청비라는 여신이 자신의 집의 남종이었던 정수남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 신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 칠월 마블림제를 얻어먹고 살게 하였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블림제는 원래 신화적 사실로부터 칠월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백중의 마블림제는 이처럼 세경본풀이라는 농경기원신화와 관련하여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백중과 마블림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화 내용을 중시하면, 백중 마블림제를 받는 대상신은 바로 정수남이라고 하는 바, 자청비라는 여신네 집의 남종이다. 정수남이라는 신이 우마를 담당하는 목축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이 소나 말을 한꺼번에 열여덟 마리나 잡아먹을 수 있는 폭식성을 가진 신인 동시에 말머리고사와 같은, 이른 바 말을 보호하는 제의를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이었다. 목축신인 정수남이 농경기원신인 자청비네 집의 남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농경에 있어 소나 말 같은 가축이 사용되었기에 농경신의 하위신으로 설정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마블림제란 말에 있어 ‘마(馬)’는 ‘말’, ‘블림’은 ‘블리다’. ‘크게 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세경본풀이는 소보다는 말이 더 중시되었던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는 백중과 마블림제가 기원적으로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현재 마블림제가 백중에 즈음하여 행해지고 있어, 이 둘이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경본풀이라는 신화는 현재도 살아있는 문화력으로 존재하며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마블림제(테우리코사), 백중, 세경본풀이, 농경기원신화, 자청비, 오곡종자

## ■ 참고문헌

〈자료〉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 조선총독부, 1937.

장주근, 『韓國の民間信仰』,金花舎(일본), 1976.

진성기, 「남국의 무가」(프린트본), 제주민속문화총서, 1968.

\_\_\_\_\_,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논저〉

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1990.

-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양재연의 3인 공저, 『한국풍속지』, 을유문화사, 1971.
- 이수자,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 \_\_\_\_\_, 「백중의 기원과 성격」, 『한국민속학』 25집, 민속학회, 1993.
- \_\_\_\_\_,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5.
-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 연구』, 집문당, 1988.
- 장주근, 『한국민속학논고』, 계몽사, 1986.

# Correlation between “*Mabulrimje*” and “*Baikjung*” : cause and meaning

Lee, Soo-Ja(The Specialist of Intangible Culture)

Up on the hills and mountainous parts of Jeju Island, they celebrate a ritual called "Mabulrimje" around the time of Baikjung which falls on 14 July in lunar calendar. "Mabulrimje" is a ritual organized by cattle breeders to pray for the prosperity of cattle -cows and horses-. Considering that "Mabulrimje" aims at prosperity of cattle along the whole yea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perform the ritual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Jeju Island, however, this ritual doesn't take place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not even in spring or in autumn but on the specific times of Baikjung. This work is focused on finding an explanation of the doubt.

We may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in a myth "Sekyoungbonpuri" transmitted orally as a segment of "Kungut" (a large ritual performed by Shamans) which was also sung in main land in ancient times. "Sekyoungbonpuri" is considered a myth of origin of our ancestor's farming because it is of the Goddess named "Jachongbi" who gave us 5 principal grain seeds, buckwheat seed and 12 countries. And this myth also tells that the goddess brought them on the day of Baikjung, 14th July of the lunar month, from which we can infer that the farming season begins on the times of Baikjung. In "Sekyoungbonpuri", there is a story of Jung Soo Nam, a male servant of the Goddess "Jachongbi", who was starving to death. Having watched him suffer, 'Jachongbi' prepared "Mabulrimje" in July to save him.



If we give much credit on what "Sekyungbonpuri" tells, it can be deduced that "Mabulrimje" was taken place closely related to Baikjung having its origin in the myth "Sekyoungbonpuri". which makes those two are inseparable even today. Therefore, the answer to the doubt why "Mabulrimje" takes place on the Baikjung season not in the beginning of a year lays on its origin in "Sekyoungbonpuri", the myth of farming.

[Key Words] Mabulrimje(The ritual which is organized by cattle breeders to pray for the prosperity of cattle) Baikjung, Sekyoungbonpuri(the myth of the origin of 5 principal grain seeds and farming). Jachongbi

